

예로부터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불리워온 우리 나라에는 소문난 명소, 명승지들이 참으로 많다. 송도원도 바로 그 많은 명소 중의 하나이다.

강원도 원산시 송흥동에 자리 잡고 있는 송도원은 마식령산줄기의 높고 낮은 봉우리들과 여기에서 뻗어내린 산발들을 배경으로 하여 펼쳐진 동해의 푸른 물결, 눈부신 백사장, 푸른 소나무숲, 굽이 훈련해당화 등이 잘 조화되어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 지명을 송도원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700여년 전 바다 바람과 모래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이곳에 소나무를 옮겨심은 때부터였다.

송도원은 바다기슭을 따라 너비 40~100m, 길이 2.7km의 흰 모래부리가 떠 모양으로 놓여있을 뿐 아니라 바다밀물과 3~5°로 매우 느리므로 기슭에서 바다로 100m까지 들어가도 물깊이가 1.5~2m 정도밖에 안되며 그 옆에는 푸른 소나무숲이 우거져 있어 해수욕장으로는 더없이 좋은 곳이다. 하여 이곳은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수많이 찾아오는 유명한 관광지로 되고 있다.

그러나 송도원의 명성은 단순히 이를난 자연풍치에만 기인된 것은 아니다.

오랜 세월 돋 많고 천재 있는 자들의 유흥터, 놀벌이터였던 이곳에 어린이들의 사랑의 집인 소년단아영소를 비롯한 인민들을 위한 훌륭한 문화휴양시설들이 일떠선 그때로부터 송도원은 자기의 아름다운 자연경치와 함께 철세위인들의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력사를 걸어 전하는 조선의 송도원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작은 전쟁의 상처를 채 가지지 못했던 주체48(1959)년 6월 풍차아름다운 송도원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이곳에 소년단아영소를 새로 지을데 대한 파업을 주시고 몸소 그 터전까지 잡아주시었다.

온 나라 강산에 명랑한 아이들의 랑만과 희열에 넘친 웃음소리가 가득 넘쳐나는 울해 이 땅의 6월은 류달리 화창하고 따스하다.

신록이 절어가는 푸르름의 계절처럼 밝고 창창할 공화국의 미래는 한참의 그늘도 없는 행복넘친 아이들의 모습에 그대로 비껴있다.

후대들을 위해서는 억만금의 재부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보시여 그가 누구든 공화국의 어린이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세인들이 터치는 한결 같은 부러움의 목소리이다.

공화국의 현실을 보며 사람들은 민족의 창황한 앞날을 위해 바치신 철세위인들의 사랑의 력사를 가슴뜨겁게 되새겨본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우리 조국은 아이들에 의해 백화란만한 화원으로 건설되게 될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후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기울이며 기울일수록 래일의 조국은 더 부강해지고

후대사랑의 정치

더 문명해지고 더 아름다워 질것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 해방직후 인민주권의 첫 의정으로 아이들의 연필문제를 제기하고 토의하도록 하신 기습드거운 이야기는 오늘도 길이 전해지고 있다.

그이에게 있어서 제일 기쁘신 날은 온 나라 아이들이 새옷을 입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날이였고 쌓아신 피로를 풀시던 날도 아이들의 노래속에 게시된 날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신의 생활에서 특별히 기쁘고 행복한 때가 있다면 그것은 나라의 꽃봉오리라고 부르는 아이들속에 있을 때라고, 이것은 자신의 일생을 좌우하고 있는 행복파라고 하시며 한생을 미래사랑의 위대한 서사시로 수놓아오시였다.

하기에 아이들은 일

년 삼백에 순다섯 날 중에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는 설날을 제일 기쁜 날이라고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설날이 되었지만 환하게 웃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을 다시 만나뵈을수 없는 슬픔에 온 나라 아이들이 몸부림치던 주체84(1995)년의 설날 아침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아이들이 기다리는 설맞이 공연무대가 아니라 눈보라에 마음을 놓지 못하시며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먼곳의 아영소건설장을 여러차례나 찾으셨으려고 치료를 받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보고싶으신 나라이름에 놀라보시다니 면도금처럼 멀리 떨어진 먼곳에까지 몸소 들려주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밤마다 부모들의 따뜻한 품을 더듬어 찾을 부모잃은 고아들의 작은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대동강

기슭에 평양시의 육아원, 애육원을 새로 훌륭히 건설하

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며 낭아준 부모도 주지 못할 따뜻한 사랑과 정을 다 기울여주시였다.

지금 세상을 둘러보면 끌이 없이 벌어지는 내전과 전쟁으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부모잃은 고아가 되어 락阵营처럼 버림을 받고 있으며 사회의 최夯생물로 끊임없이 퍼워보지 못한채 스러지고 있는 가슴아픈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혜택 아래 아이들이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

기들의 재능을 마음껏 꽂고

우고 나라의 기둥감들로

우리의 기둥으로

나라를 빛나고 있다.

민족의 앞날, 나라의 만년대계는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달려있다.

이 세상에서 아이들을 제일 사랑하시는 인민사랑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어버이로 모시여 공화국의 미래, 민족의 미래는 그토록

탁하고 훙창창한것이다.

동성희

사람들의 생활에 널리 리용되는 모자는 헤아릴수 없으며 그 종류와 모양새도 각양각색이다.

외모단장을 돌구어주고 품격을 높여주며 때로는 눈바람이나 뾰족으로부터 머리도 보호해주는 모자. 계절에 따라 다르고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다르며 취미와 기호에 따라 사람들이 각이하게 쓰고 하는 모자이다.

그 많고 많은 모자 가운데서 제일 훌하고 소박한 모자를 끊는다면 농립모가 아니겠는지...

지금과 같이 바쁜

농번기에는 그 어느 농촌에 가보나 농립모를 쓰고 푸식을 가꾸는 사람들의 모습을 흔히 볼수 있다. 그런데 레시름계만 보아왔던 이런 농립모가 새삼스런 의미로 가슴에 와닿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며칠 전

과학자

휴양소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기쁨을 뜨겁게 했다.

수수한 농립모를 쓰시고

과학자들을 위해

건설

장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이라고 하시면서 휴양소

에서

건설

을

하

나

그

리

경

월

이라고 하시면서 휴양소

에서

건설

을

하

나

그

리

경

월

이라고 하시면서 휴양소

에서

건설

을

하

나

그

리

경

월

이라고 하시면서 휴양소

에서

건설

을

하

나

그

리

경

월

이라고 하시면서 휴양소

에서

건설

을

하

나

그

리

경

월

이라고 하시면서 휴양소

에서

건설

을

하

나

그

리

경

월

이라고 하시면서 휴양소

에서

건설

을

하

나

그

리

경

월

이라고 하시면서 휴양소

에서

건설

을

하

나

그

리

경

월

이라고 하시면서 휴양소

에서

건설

을

하

나

그

리

경

월

이라고 하시면서 휴양소

에서

건설

을

하

나

그

리

경

월

이라고 하시면서 휴양소

에서

건설

을

하

나

그

리

후대중시, 미래사랑의 숭고한 화폭

*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남조선출신의 한 유가족에게 베풀어주신 전설 같은 사랑의 이야기 *

후대중시, 미래사랑은 인간의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감정이며 미덕이다.

백두산3대 장군들은 그 고귀한 사상감정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최상의 높이에서 실천하신 후대 사랑, 미래사랑의 확신이시었다.

장군님의 품에 안겨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65년 전인 주체 38(1949)년 봄 어느날이었다.

삼태성도 이미 기울었지만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계시는 집무실에는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밤이 깊도록 해당 일군들에게 새 민주선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침집을 주신 수령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찬밖을 내다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눈앞에는 남조선에 세 자식을 둔 한 일군이 떠올랐다.

그가 바로 사법성 부상이었던 리종갑선생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를 아시게 된 것은 1946년이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주체35(1946)년 3월 《무허가학교 폐쇄령》이라는 것을 공포하고 진보적 경향이 강한 서울법정학교와 수많은 사립학교들을 폐쇄한데 이어 8월 22일에는 남조선에서 교육을 철저히 식민지 예속화 할 목적으로 《군정법령》 제102호(《국립서울대학학교설립에 관한 법령》)를 공포하였다.

격분한 교원들과 학생들은 《〈국대안〉을 반대한다!》, 《학원을 민주화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가두시위를 벌렸다.

이 투쟁의 앞장에는 당시 서울법정학교 교원이었던 리종갑선생이 서 있었다.

청년 학생들과 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미제는 《국립서울대학학교설립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일부 끌어고쳤지만 수많은 사립학교들을 강제적으로 폐쇄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로 하여 서울법정학교에서만도 500여명의 학생들이 배움의 길을 잃게 되었다.

리종갑선생을 비롯한 서울법정학교 교원들과 학생들은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 살례를 보고드리고 가르침집을 받기 위해 교원, 학생 대표들을 평양에 파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민주선건설 사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사선을 헤쳐온 그들을 만나주시였다.

그들로부터 리종갑선생에 대하여 아시게 된 수령님께서는 그를 늘 마음속에 새겨두시였다.

남조선의 진보적인 교원들과 애

그 숭고한 사랑의 세계 속에는 남조선의 평범한 변호사였던 리종갑선생의 자녀들에게 베풀어주신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다.

조선소년단창립 68돐을 맞이하면서 아직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연을 전한다.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리종갑선생의 세 자녀들을 복으로 터려오기 위한 작전이 펼쳐지게 되었으며 구출 성원들이 서울로 향하게 되었다.

그들을 구출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부청사(지금의 해방산기슭)로부터 가까운 곳에 7칸짜리 살림집까지 미리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서울에 도착한 구출조성원들은 거리를 헤매고 있던 리종갑선생의 세 자식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등에 업고 38° 선을 무사히 넘어왔다.

그 소식을 보고받으시고 누구보다 기뻐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자식들과 아버지의 상봉까지 조치해주시였다.

자기 앞에 뜻밖에 나타난 세 자식들을 보고 깜짝 놀란 리종갑선생은 그에 대한 전후사연을 전해듣고나서는 《장군님…》하고 목에 부르며 더 말을 잊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였다.

세 자식들을 품에 꼭 껴안은 선생은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종갑이는 한생을 장군님의 전사로 살겠습니다.》라고 굳게 맹세하였다.

그들이 새 집에서 살림을 편지 열 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리종갑선생은 같은 밤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리종갑선생의 막내아들을 친형 제처처럼 따뜻이 대해주신 어린 장군님께서는 칠판에 《우리 나라》라고 굽게 쓰시고 한자한자 우리 글을 익혀주시고 미래의 역군으로 자라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렇듯 백두산3대 장군들의 은혜로운 손길 아래 리종갑선생의 자녀들은 온갖 복을 다 누리며 힘의 나래를 활짝 펴고 있다.

그들이 새 집에서 살림을 편지 열 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이것은 혁명의 계승에 관한 문제요》

해방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인내성 있게 노력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리승만파퇴도당은 주체39(1950)년 6월 25일 새벽, 불의에 공화국북부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영웅한 우리 민족군인들은 신속히 반격으로 넘어가 6월 28일 적의 악성인 서울을 해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해방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일군들을 파견하시였다.

수령님의 거친침입을 받고 남조선의 신해방지역에 나간 리종갑선생은 서울을 비롯한 여러 곳에 재판소를 내오기 위한 사업에 달려하였다.

재판소들을 조직한 리종갑선생은 인민참심원들을 발동하여 적대급의 준동을 진압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여나갔다.

대오의 앞장에서 적돌파의 투쟁을 이끌어가던 리종갑선생은 주체40(1951)년 10월 그만 원쑤들에게 회생되게 되었다.

리종갑선생의 최후를 보고받으

한 일군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보내주신것이라면서 두개의 구력을 가져왔다.

어머님께서는 폐일이면 서울에서 온 리종갑선생의 아이들이 학교에도 가고 유치원에도 가야 하겠는데 집에는 너자의 손이 없으나 누가 아이들의 옷을 순질하여 학교에 보내겠는가 하고 친히 굽게 다림질까지 하신 새옷들을 보내주셨던것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구역안에는 리종갑선생의 양복과 함께 막내아들의 구두까지 들어있었다. 그 구두는 어머님께서 어려신 장군님을 위해 친히 마련하셨던것이었다.

다음날 김정숙어머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 교복을 깨끗하게 차려 입은 리종갑선생의 세 자녀들은 학교와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었으며 유치원생인 막내아들은 어리신 장군님과 같은 밤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리종갑선생의 막내아들을 친형 제처처럼 따뜻이 대해주신 어린 장군님께서는 칠판에 《우리 나라》라고 굽게 쓰시고 한자한자 우리 글을 익혀주시고 미래의 역군으로 자라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자나깨나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게 된 원아들은 앞을 다투어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어떤 원아들은 수령님의 손목을 부여잡고 발을 통통 굴렸고 또 어면 원아들은 들꽃을 한아름 묶어 그이께 올리었다.

《너희들이 보고싶어서 왔다.》고 하시며 원아들을 사랑의 한풀에 안아주신 수령님께서는 나아린 원아들을 자신의 곁에 앉히시고 그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한 원아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문득 《네가 리종갑의 딸 경숙이로구나. 틀림없어. 자, 어디 한번 더 보자.》라고 하시며 못내 반가워하시였다. 깊은 생각에 잠겨 그의 어깨를 정겹게 쓰다듬어 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너의 아버지가 잘 쌔웠다. 아버지가 법률에서 아주 재능이 있었지. 해방전에 법률공부를 하였지만 땅심직인 법을 기였다.》라고 리종갑선생을 감회깊이 회고하였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수령님의 품에 앉았던 학교에서 헤매는 것을 자신께서 사람을 보내어 엄마온 애들이라고, 그애들을 잘 보살펴줄때 대한 내각결정을 책택하자고 뜨겁게 이르렀다.

이윽하여 그애들은 어머니를 끌고 서울에서 헤매는 것을 자신께서 사람을 보내어 엄마온 애들이라고, 그애들을 잘 보살펴줄때 대한 내각결정을 책택하자고 뜨겁게 이르렀다.

전쟁승리를 위한 중대 사들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가지로 제기되는 때에 한 유가족을 위해 내각결정을 책택한다는 것은 참으로 상상밖의 일이였다.

놀라워하는 일군들을 한동안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내각결정이라는것은 국사를 결정하고 국사만 둔하는것이 아니라 고우, 우리가 얼마나 후대를 귀중히 여기는가를 세상에 대고 소리쳐보자고 하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이것은 혁명의 계승에 관한 문제요.》

혁명의 계승에 관한 문제!

천민군의 무게가 실린 그 고귀한 말을 받을 때 이 모든 일군들은 절세위인의 뜨거운 사랑의 세계, 송월세우의 밤을 눈꼽을 적시였다.

리종갑선생의 최후를 보고받으

위대한 수령님의 그 높으신 뜻과 정에 떠받들려 인류전쟁사, 세계 정치사에 류례없는 내각결정이 책택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결정 제358호.

《고 리종갑동지의 유가족을 보호함에 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법령 부상이던 고 리종갑동지가 조국의 자유와 통일독립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다가 전사한데 대하여 그의 유가족을 보호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
2. 고 리종갑동지의 유가족에 일시적보조금 30,000원을 급여하며 그 미성년자녀들에게 최종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학비보조금을 매월 1인당 1,000원씩 지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 1951년 11월 8일

전쟁의 불구름과 총포성을 풀고 온 우주로 메아리쳐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결정 제358호》.

정녕 그것은 누구도 따르지 못하고 미에판을 지나신 우리 수령님께서만 내놓으실수 있는 후대사랑의 결정서였다.

이렇게 되여 전시조건에서 한 유가족의 자녀들이 매월 1인당 1,000원씩 국가로부터 지급받으면서 공부하는 전설같은 화폭이 펼쳐지게 되었던것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관, 따사로운 미래사랑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굳건히 이어져 친한 히어로화되고 있다.

6.6월은 조선소년단의 명절인 동시에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의 소중한 명절이라고 하시며 조국청사에 없었던 대규모의 친절절기 행사를 마련해주시고 소년단원들을 사랑의 품에서만 인간의 참된 삶을 누릴수 있고 조국의 미래가 꽂혀날수 있다는 참다운 진리를 새겨주고 있다.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후대관, 따사로운 미래사랑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굳건히 이어져 친한 히어로화되고 있다.

소년단원들을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내세워주신 6.6월은 원수님께서는 남모르는 그늘이 있소라고 하시며 동행한 일군들에게 《우리가 그고 품을 지워주어야 하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꿈결에도 부모를 그리워하는 자녀의 손미음까지 친아버지이십정으로 헤아려주시는 수령님의 다시한 사랑에 그는 만시름을 잊은채 흐느끼였다.

자나깨나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게 된 원아들은 앞을 다투어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어떤 원아들은 수령님의 손목을 부여잡고 발을 통통 굴렸고 또 어면 원아들은 들꽃을 한아름 묶어 그이께 올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즉시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떠나고나갈 후대들을 위한 사랑의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한명한명의 군인이 그토록 필요했던 전화의 날을 전호에서 종을 잡았던 학자, 교원, 편집인들이 학생들의 교과서편찬을 위해 후방으로 소환되고 군수물을 신고 전방으로 달리던 군용차들이 교과서를 싣고 후방으로 달리는 감동적인 화폭이 펼쳐지게 되었다.

백두산위인들의 따사로운 손길에 전화의 불길속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이 글씨로는 언제 한번 그친적이 없었으며 그들은 조선을 떠나고나갈 미래의 주인공들로 얹어세워 자랐다.

그 은정속에 리종갑선생의 자녀들은 학원을 졸업하고 주체과학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여 배움의 나래를 더욱 활짝 펼쳤다.

위대한 김정일장군께서는 대학을 졸업한 리종갑선생의 딸을 후대교육의 교단에 세워주시고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국가행사들에도 불러주시며 그나쁜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

라는 이름을 무실히 부를수 없다.

과학자거리가 늘어난다! 하나님의 시어처럼 들리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는 공화국의 기상, 문명의 새로운 화폭을 펼쳐가는 시대정신이 맥박치고있다.

과학을 떠나서 나라와 민족의 발전전망, 사람들의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거창한 규모로 일어서는 위성과학자거리와 앞날의 미래과학자거리.

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시간을 다투어 일어서는 현대적인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과 새로 일어서게 될 미래과학자거리를 그려보며 나는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승리의 열쇠로 틀어쥐고 천하제일강국을 일어서는 공화국의 밝고 창창한 래일을 보았다.

최대성

과학자거리에 대한 생각

지인테리의 불우한 처지를 살피면서 피눈물을 삼켜야 했다. 그러나 해방후 조국의 품에 안겨서야 민족을 위한 애국의 길에서 과학으로 활동하는 삶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은 그의 일생이었다. ...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이다. 해방후 새 조국을 건설하는 데서 지식인들의 역할을 해야 허보시고 남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믿음어린 위축장을 보내주시었으며 전화의 날에는 파악원을 창립해주시며 나라이 과학발전의 밑을 토대를 마련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이시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라고 하시며 과학기술중시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3대기둥

의 하나로 제시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그 믿음을 짐작깊이 간직하였기에 과학자들은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도 제2차 세계大战을 위한 한몸의 향력을 위한 배당이 아니라 조국의 미래를 걸고자 했던 그룹이다. 그들이 그 힘을 무너뜨렸던 고난의 시기에는 그대로 무궁무진한 과학기술의 잠재력으로 되어온 배당이다.

그리고

지난 5월 29일 남조선 『KBS』 방송의 조로원 3,900여명은 길 환영 『KBS』 사장의 해임과 보도의 독립성, 제작의 자율성을 요구하여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조로원은 물론 방송국의 부장을 비롯한 직원들까지 참가한 이 파업으로 인해 예정되었던 『KBS』 방송의 프로그램들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가 하면 『MBC』 방송을 비롯한 다른 언론들에 파업 투쟁이 확대되고 있다.

『KBS』 사태로 불리워지는 이번 사태의 발단은 『세월』 호 참사와 보도과정에 드러난 청와대의 언론개입이었다. 『세월』 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부터 『KBS』 방송을 포함한 남조선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사고현장에서 취재와 보도활동을 벌리었다. 하지만 언론사들은 『정부』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받아넘기거나 구조활동을 괴롭혀 보도하는 한편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울분과 요구를 외면하여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런 속에서 5월초 『KBS』의 보도국장이었던 김시곤은 『세월』 호 참사를 인한 사망자수가 네 간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것이 아니다.』고 밝언하여 그 분노를 폭발시키었으며 결국 사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 김시곤은 자기의 사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KBS』 사장인 길 환영과 청와대가 자기에게 사퇴할 것을 강박하였으며 자기의 재임기간 보도관련 압력을 청와대로부터 수시로 받았는가

남조선당국이 미일파의 군사적결탁에 기를 쓰고 매달리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미일남조선국방장관회담과 미국남조선국방장관회담이 진행되었다. 회담들에서는 북의 『핵과 미싸일위협』을 구실로 그 무슨 『정보공유의 중요성』이 제재하고 미일남조선이 군사정보공유문제를 적극 검토해나가며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시기를 확정하기 위한 고위급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어리석은 시도가 아닐수 없다.

다 아는것처럼 미일파의 군사적결탁은 남조선당국이 추구하고 있는 동족대결소동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래한 군사적결탁판례에 빙

『기습』이 아니라 공공연한 침략행위

한조각의 동포에도, 인간의 양심도 없는 무지막지한 강제인민화를 통해 남조선당국이 고기잡이를 위해 바다에 나갔다가 통해상에서 조난당해 남쪽에 떠밀려간 우리 선원들중 1명만 둘려보내고 2명은 부당하게 억류하고 있다는 소식에 접하여 치솟는 분노를 금할수 없다.

지금이 어느때인데 밝은 이 세상에서 백주에 우리 주민을 강제억류할수 있단 말인가. 세년당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방조를 주어 자기 지역으로 둘려보내는것은 초보적인 인도주의원칙이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판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을 강제억류하고 있는 것은

벗겨진 남측 『언론자유』의 실상

다면 『세월』 호 사고취재보도에서도 해양경찰에 대한 비판을 자체하는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세월』 호 참사 이후 남조선에서 새롭게 만들어져 급속히 퍼진 『기제기』라는 날말이 이것을 증명해준다. 『기자』와 『쓰레기』라는 단어의 핵심이 『세월』 호 참사를 제기로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에 대한 유가족을 비롯한 인민들의 원한과 증오를 외면하는 『정부』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공개했다. 13일 『KBS』로 조는 신입보도국장이 청와대 관계자와 접선했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18일에는 『KBS』 기자협회가 길 환영 사장의 보도개입과 청와대 9시보도를 어떻게 통제했는지 보여주는 『보도외압일지』를 공개하며 사파문을 발표했다.

남조선 각계는 이번 사태를 두고 『KBS』는 지난 1년 5개 월간 『정권』의 나팔수요, 권력의 방해였다. 『청와대의 방해도 판연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하면서 사이비 언론으로 전락한 『KBS』 방송의 경영진과 청와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에 남조선에서 터진 『KBS』 사태는 많은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것은 우선 언론이 자기의 생명인 객관성과 공정성, 진실성을 잃고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우게 된다면 정의와 진리를 대변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을 다할수 없으며 민심의 외면과 버림을 받는

다는 것이다. 『세월』 호 참사 이후 남조선에서 새롭게 만들어져 급속히 퍼진 『기제기』라는 날말이 이것을 증명해준다. 『기자』와 『쓰레기』라는 단어의 핵심이 『세월』 호 참사를 제기로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에 대한 유가족을 비롯한 인민들의 원한과 증오를 외면하는 『정부』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공개했다. 13일 『KBS』로 조는 신입보도국장이 청와대 관계자와 접선했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18일에는 『KBS』 기자협회가 길 환영 사장의 보도개입과 청와대 9시보도를 어떻게 통제했는지 보여주는 『보도외압일지』를 공개하며 사파문을 발표했다.

남조선 각계는 이번 사태를 두고 『KBS』는 지난 1년 5개 월간 『정권』의 나팔수요, 권력의 방해였다. 『청와대의 방해도 판연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하면서 사이비 언론으로 전락한 『KBS』 방송의 경영진과 청와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시곤이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바와 같이 『KBS』 방송은 지난 리미박 『정권』에 임명된 사장부터 『정권』에 유리한 내용은 확대 방송하고 불리한 것은 잘라버리는 것을 관행으로 일삼아왔다. 『KBS』 사장이 보도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원칙』이라는 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정보원의 공작과 관련한 사건보도에도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청와대를 모시는 자세』가 그처럼 『투철』한 『KBS』 방송이 지난 시기 북남관계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어떻게 보도활동을

벌리였는지 돌아보기 어렵다.

지난 시기에도 『KBS』 방송은 『남북의 칭』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간쓰레기들과 미국첩보기관에서 얻은 『정보』라는 것을 토대로 북에서 『화학무기인 체험』이었던 백선엽과 히승만까지 미화분식하는 방송을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혐오와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총

를 표출하는 반통일적인 책임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3일 까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심양시지부 조국방문단이 공화국을 찾았다.

조국에서 보낸 7일간, 사람의 한생에서 한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도 짧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나날들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슴속 깊이 자리잡은 잊지 못할 나날들이었다.

기자는 그들의 조국방문일정을 함께 하는 과정에 받아 안은 느낌의 일부를 적어보려 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심양시지부장은 헌원선생(58살)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조국방문단의 일행은 모두 7명이었다.

령순자선생(80살), 김영자선생(73살), 리보비선생(79살), 강태숙선생(74살), 김정애선생(60살), 김정희선생(56살).

『남자로 태여나서 우쭐했는데…』

5월 29일 오전 10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심양시지부 조국방문단일행을 태운 빠스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앞에 멀어섰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찾았습니다』

가름한 얼굴에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정답아인사하는 박윤희의 사의 모습은 이곳을 찾은 방문단성원들의 마음을 대번에 즐겁게 하여주었다.

한 직원이 연구소문앞에 놓여있는 자그마한 함통을 가리키며 말을 가져다 라고 친절히 가르쳤다. 신발우



만경대 고향집에서



옥류아동병원에서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에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심양시지부

조국방문단의 체류일정을

따라

부분이 고령의 몸들이었지만 나이에 비해 뛰 건강해보였고 조국을 찾은 감격과 기쁨으로 언제나 즐거워하였다.

김정애선생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여러 차례 조국에 와보았던 동포들이다.

이번 조국방문나날 이들은 만경대를 방문하고 유통아동병원,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만경대학생소년공연,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평양민속공원, 개성시를 비롯하여 많은 곳을 참관하였다.

그들의 입에서는 연예연방감탄이 끊길줄 몰랐다.

3층의 입원실에 이른 방문단일행은 경진조사표를 받아들고 검사를 받기 시작했다.

『남자도 유선종에 걸리는 데 단장선생님은 검사를 안받으시렵니까?』

『아니, 난 뱉어요. 그동안 글이나 좀 쓰겠어요.』

녀성이 대부분인지라 단장

료봉사체계가 실현되어 전국의 녀성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과 유선질병들의 조기치료 및 예방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애선생이 일행의 심정을 대변하여 얘기했다.

『물론입니다. 모두들 한번 받아보십시오. 유선종은 나이가 많다고 하여 안심해도 된다는 담보가 없는 병이 랍니다.』

박윤희의 사의 해설을 들으며 방문단일행은 1층부터 차례차례 연구소를 돌아보았다.

그들이 입에서는 연예연방감탄이 끊길줄 몰랐다.

3층의 입원실에 이른 방문단일행은 경진조사표를 받아들고 검사를 받기 시작했다.

『아하하하— 우리 단장선생은 생기기도 잘 생기시고 글도 참 잘 써요.』

청높은 녀인들의 웃음소리에 단장선생도 소리없이 웃었다.

비록 걸지 않은 글이었건만 쿵—하고 가슴을 울려주는 말마다들이였다.

『5월 30일 오후 2시, 드디어 이번 조국방문의 길에서 가장 기다려지던 일정이 다 왔다.』

이날의 참관지는 문수물놀이장이었던 것이다.

때는 초여름이라 하지만 이날 평양의 기온은 33°C 고온을 기록했다.

『저기 수영복을 내주는 곳에서 수영복과 모자를 라가지고 탈의실에서 입고 나오면 됩니다. 명심하실 것은 꼭 모자를 써야 합니다.』

안내원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나더니 문뜩 권현단장선생이 이렇게 물었다.

『정말 좋아요. 조국에서 수영을 하니 더욱 좋은 것 같아요. 매 수조의 모서리들이 원형으로 되어있으니 넘어져도 다칠 럴려도 없고 하나님과 인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게 알려요.』

일행은 각기 이 수조, 저수조를 다니며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수조에 함께 들어갔다. 젊은 남녀들이 쳐절썩치는 파도와 함께 앞으로 나갔다 뒤로 밀리며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유쾌히 웃었다.

맑은 물속에서 시름없이 웃는 그들의 모습은 로인들이 아니라 마치 어린애와 다름없었다.

문수물놀이장에 넘치는 맑은 물이여, 내 조국의 사랑처럼 정말 맑고 따뜻하구나!

『안전 모를 써야 해요?』

5월 30일 오후 2시, 드디어 이번 조국방문의 길에서 가장 기다려지던 일정이 다 왔다.

이날의 참관지는 문수물놀이장이었던 것이다.

때는 초여름이라 하지만 이날 평양의 기온은 33°C 고온을 기록했다.

물놀이를 하기에는 제격의 날씨이지만 방문단일행의 평균령이 70대라는 사실은 기자로 하여금 선생들이 꽤 물에 들어설 수 있을가 하는 위orrisip이 들었다.

리우순안내원의 해설을 들으며 방문단일행은 문수물놀이장에 들어섰다.

실내물놀이장의 홀에 모셔진 당시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링게르주사를 맞다가도 돈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바늘을 뽑아버려요. 죽든 말든 상관없지요. 돈지불 확인서를 가져온 다음에야 다시 끊어주지요.

조국인들은 정말 행복 속에 살고 있어요.』

입원실을 나서며 권현단장선생이 하는 말이었다.

알고보니 그에게는 사연이 있었다. 단장선생의 부인이 유선양성종양으로 진단받고 많은 돈을 내고 몇년전에 수술을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병이 도져 걱정하고 있었다.

순간 절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자가 이해하는 안되지하면서도 두불로는 하염없이 뜨거운 것이 허리내림을 걸잡을 수 없었다. 머리를 돌리고 그 모습을 감추느라 방문단일행을 놓칠뻔까지 하였다.

『의사선생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우리도 한번

선생은 출곧 방문단의 즐거운 화제로 되었다.

모두들 검사를 받고 나오니 그동안 권현단장선생은 감상록에 이런 글을 남겼다.

『의료보험에 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것이 한장의 휴지이로다. 남자로 태여나서 우울했는데 그것도 제도에 따른 것이다. 2014. 5. 29 권현.』

『아하하하— 우리 단장선생은 생기기도 잘 생기시고 글도 참 잘 써요.』

청높은 녀인들의 웃음소리에 단장선생도 소리없이 웃었다.

비록 걸지 않은 글이었건만 쿵—하고 가슴을 울려주는 말은 참으로 멋진였다.

김정애선생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정말 재미있어요.』

라며 말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방문단성원들 모두가 세계적으로 마술은 보통 돈 많은 유한계층의 『취미의 승마』로 불리우는데 평범한 근로인들이 누구나 와서 즐기고 있는 것을 보며 무척 놀랐다.

한편에서는 리보비, 강태숙, 령순자, 김영자선생들이 수조에 들어가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라고 노래를 부르며 어깨춤까지 추고 있었다.

권현단장선생도 몇년만에 수영을 한지지만 젊은이들 못지 않게 수영을 잘하였다.

『참 수영을 잘하십니다. 문수물놀이장에서 수영을 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옆주로에서 수영을 하던 남이가 지속해보이는 한 남성이 단장선생에게로 다가와 물었다.

『정말 좋아요. 조국에서 수영을 하니 더욱 좋은 것 같아요. 매 수조의 모서리들이 원형으로 되어있으니 넘어져도 다칠 럴려도 없고 하나님과 인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게 알려요.』

일행은 각기 이 수조, 저수조를 다니며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수조에 함께 들어갔다. 젊은 남녀들이 쳐절썩치는 파도와 함께 앞으로 나갔다 뒤로 밀리며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유쾌히 웃었다.

맑은 물속에서 시름없이 웃는 그들의 모습은 로인들이 아니라 마치 어린애와 다름없었다.

문수물놀이장에 넘치는 맑은 물이여, 내 조국의 사랑처럼 정말 맑고 따뜻하구나!

문명의 길로 달린다

5월 30일 오후 5시, 일행은 미림승마구락부를 찾았다.

승마는 다를 처음인지라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였다. 매 사람에게 조교사가 따라다니며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고 나서서 김정회선생과 김정애선생, 권현단장선생이 말을 타겠다고 나섰다.

다른 나이 많은 선생들은 2층에 있는 후식장에서 이들의 말라는 모습을 보면서 허

수영복을 내보이며 『61살에 송도원에 가서 해수욕을 해본게 마지막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꽤 할수 있을가 싶었는데 오늘 물놀이장을 돌아보니 당장 물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김정애선생이 이렇게 말하며 재빛말에 올라탔다. 『이

깔』이라고 불리우는 말은 올해 7살이 된다고 한다. 윤일광이라는 총각조교사의 손에 이끌려 뚜벅뚜벅 내짚는 말은 참으로 멋진였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심양에는 바다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수영장과 물놀이장이 여전히 물수풀을 이장처럼 크고 멀고 있고 물맑은 물놀이장은 없다고 한다.

일행 중 『젊은축』에 속하는 김정회선생과 김정애선생(그들은 자매지간이다.)은 8자구명에 애아 물미끄럼 대를 타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리보비, 강태숙, 령순자, 김영자선생들이 수조에 들어가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라고 노래를 부르며 어깨춤까지 추고 있었다.

권현단장선생도 몇년만에 수영을 한지지만 젊은이들 못지 않게 수영을 잘하였다.

『참 수영을 잘하십니다. 문수물놀이장에서 수영을 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옆주로에서 수영을 하던 남이가 지속해보이는 한 남성이 단장선생에게로 다가와 물었다.

『정말 좋아요. 조국에서 수영을 하니 더욱 좋은 것 같아요. 매 수조의 모서리들이 원형으로 되어있으니 넘어져도 다칠 럴려도 없고 하나님과 인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게 알려요.』

일행은 각기 이 수조, 저수조를 다니며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수조에 함께 들어갔다. 젊은 남녀들이 쳐절썩치는 파도와 함께 앞으로 나갔다 뒤로 밀리며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유쾌히 웃었다.

맑은 물속에서 시름없이 웃는 그들의 모습은 로인들이 아니라 마치 어린애와 다름없었다.

문수물놀이장에 넘치는 맑은 물이여, 내 조국의 사랑처럼 정말 맑고 따뜻하구나!

식하였다.

하루전인 29일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곳 송마장에 여름승마복들을 일식으로 보내주셨다고 한다. 방문단일행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송마복을 처음으로 입는 행운을 지니게 되었다.

말들도 그이께서 보내주신 것인데 보배 우수한 품종이라는 것이 첫눈에 알렸다.

마을은 말이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하나하나의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문화정서생활을 누려가는 조국인민의 모습은 그대로 문명의 길로 내달리는 공화국의 모습인 것이다.

*

*

6박7일, 비록 걸지 않은 나날들이었다. 이들은 만

나날

들이었다.

같이

송구스럽구나

본사기자 김준경

길가의 장미여 너 유난히 아름답구나

내 평양의 노래를 할래너

너는 춤춰라

조국은 우리를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주는데

우리의 애국이 부족한 것

같아 송구스럽구나

본사기자 김준경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것

같은</p

